

# 5월 주말은 야외로... 별과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

나들이 시즌 야외 페스티벌 잇따라  
재즈·포크·EDM 등 다양한 장르  
국내외 인기 아티스트 총출동

나들이 하기에 좋은 5월과 6월에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이 연이어 개최된다. EDM, 포크,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앞세운 페스티벌이 준비된 만큼, 한층 풍성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지난 12~13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뷰티풀민트라이프'(이하 '뷰민라')가 개최됐다. 인디 음악 페스티벌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뷰민라'에는 올해도 십센치, 페퍼톤스, 몽니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무대를 빛냈다.

오는 19~20일에는 세 개의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서울재즈페스티벌'(이하 '서재페'), '그린플러그드 서울2018'(이하 '그린플러그드'), '2018 자라섬 포크 페스티벌'(이하 '자라섬 페스티벌')이다.

먼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서재페'는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관객과 만난다.

올해는 첫 내한에 나서는 로린 힐, 제시 제이를 비롯해 아이언&와인, 프랩 등 세계적인 재즈 아티스트 40명이 출연을 확정했다.

또한 재즈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에픽하이, 혁오, 넬, 루시드폴, 크러쉬, 로이킴 등 대중성



왼쪽부터 서울재즈페스티벌, 그린플러그드 서울2018, 2018 자라섬 포크 페스티벌, 2018 월드디제이페스티벌, 울트라뮤직페스티벌의 포스터.

을 갖춘 국내 뮤지션이 무대에 오르는 만큼 한층 풍성한 축제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2010년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그린플러그드'는 어쿠스틱,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하는 페스티벌인 만큼 누구나 함께 즐기기에 적합하다.

올해는 이승환, YB, 자이언티, 윤미래, 드림콘타이저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출연을 확정했고 어쿠스틱 뮤지션들도 대거 참여한다.

'그린플러그드'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뮤지션리그'가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신인 그린프렌즈'를 통해 발굴된 밴드들도 눈여겨 볼만 하다. 애쉬락, 카딘을 포함해 어쿠스틱, 키스투, 플라

스틱 케이스 등 5팀이 그 주인공이다.

서울을 벗어나 자라섬으로 시선을 돌리면 색다른 음악 페스티벌을 만나볼 수 있다. 바로 '자라섬 페스티벌'이다.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인 '자라섬 페스티벌'은 따뜻한 봄 감성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포크 음악과 통기타 문화를 이끌었던 송창식, 한대수가 출연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장필순, 신현희와 김루트, 조동희, 동물원, 유리상자 등 신구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EDM, 힙합 페스티벌도 빠지지 않는다. 오는 26~27일에는 올림픽주경기장에서 '2018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이하

'월드페')이 열린다.

'월드페'는 지난해 10주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EDM 페스티벌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잠실 주경기장으로 개최지를 옮기면서 아시아 대표 EDM 페스티벌로 자리매김 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5배 커진 무대를 자랑한다. 80m에 이르는 초대형 메인 스테이지와 보조 경기장으로 옮긴 서브 스테이지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축제를 만

날 수 있을 전망이다. 라인업도 화려하다. 세븐 라이언즈(Seven Lions), 그리핀(GRYFFIN), 무라마사(MURAMASA) 등이 이름을 올렸고 올리버 넬슨(Oliver Nelson)과 탐톡(Tobtok)의 합동 공연 등 '월드페'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도 준비됐다.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7회 '울트라뮤직페스티벌'(이하 'UMF')은 또 하나의 국내 대표 EDM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7주년을 맞이해 더욱 풍성한 라인업을 꾸렸다. EDM을 모르는 이들도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메가 히트곡의 주인공들이 'UMF'를 위해 한국을 찾는다.

체인스모커스(The Chainsmokers), 제드(Zedd), 데이비드 게타(David Guetta), 악스웰·인그로소(Axwell & Ingresso), 스티브 안젤로(Steve Angello), 알엘 그라임(RL Grime), 아이스 큐브(Ice Cube) 등이 무대에 오르는 만큼 기대를 모은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co.kr

## SM엔터테인먼트, 베트남 손 뻗는다 신태용號, 최종엔트리 이승우 깜짝 발탁

베트남 IPP그룹과 MOU 협약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지난 10일 베트남 최대의 리테일 & 라이프스타일 기업 IPP 그룹과 베트남 시장 진출 및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했다.

SM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베트남 최대의 리테일 & 라이프스타일 기업 IPP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 엔터테인먼트와 광고사업, 미디어,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SM 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MOU 체결식에는 SM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김영민 총괄사장, 한세민 대표, 그룹 NCT 태용, 마크, 자니, IPP 그룹의 조나단 하잉 응우옌(Johnathan Hanh Nguyen) 회장, 레 홍 튀 티엔(Lê Hong Thuy Tien) 총괄사장, 필립 응



(왼쪽부터) IPP 그룹 조나단 하잉 응우옌 회장,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총괄사장, /SM엔터테인먼트

우옌(Phillip Nguyen)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SM은 IPP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의 베트남 진출 및 현지 아티스트 발굴, 육성을 통한 V-POP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 제작, 광고 대행 사업 및 라이프스타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28명 발표... 부상자 대비 5명 추가선발

2018러시아월드컵에 나설 한국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잘츠부르크)이 포함됐고, '20살 공격수' 이승우(베로나)도 깜짝 발탁됐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은 1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출전 선수 명단 발표식에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빛낼 28명의 대표팀 공개했다.

최종 명단은 23명이지만 부상자들의 상태를 지켜보는 차원에서 5명을 추가 발탁했다. 신 감독은 28명의 선수를 데리고 오는 5월 28일 운두라스전, 6월 1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을 치른 뒤 5명을 탈락시킨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명단(28명)

- ▲ GK = 김승규(빛셀 고베) 김진현(세레스 오사카) 조현우(대구)
- ▲ DF =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장현수(FC도쿄) 정승현(사간 도스) 윤영선(성남) 권경원(텐진 취안젠) 오만석(제주) 김진수(전북) 김민우(상주) 박주호(울산) 홍철(상주) 고요한(서울) 이용(울산)
- ▲ MF = 기성용(스완지시티) 정우영(빛셀 고베) 권창훈(디종) 주세종(아산)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재성(전북) 이승우(베로나) 문선민(인천)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
- ▲ FW =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잘츠부르크) 김신욱(전북) 이근호(강원)

최전방 공격진은 '손세이셔널' 손흥민과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뛰는 황희찬이 뻗었다. 신 감독은 두 사람을 투톱 공격수로 가동하면서 김신욱(전북)과 이근호(강원)를 백업 자원으로 이용할 전망이다. 왼쪽 날개지원인 염기훈(수원)이 갈비뼈 골절로 대표팀 명단에서 빠진 가운데, 이청용이 빈자리를 대신한다.

K리그에서는 이재성(전북)을 비롯해 스웨덴 리그를 경험한 문선민(인천)도 신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주세종(아산)

도 포함됐다. 또 중원 조율사인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이 2010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월드컵 무대에 나설 기회를 얻었고 정우영(빛셀 고베)이 더블 불란제 지원으로 뻗었다. 프랑스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권창훈(디종)과 '베테랑'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도 무난히 대표팀에 승선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승우의 '깜짝' 발탁이다. 신 감독은 '자신의 전술 구상에 필요한 선수'라며 이승우의 러시아행을 확정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co.kr

### 오늘의 날씨

5월 15일  
음력 : 4월 1일

수도권 날씨  
28 ~ 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스포츠 한줄 News

- ▲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사진)이 3주 만에 다시 세계 '톱20'에 진입했다.
- ▲ 저스틴 토머스가 남자골프에서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 ▲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야구 국가대표 선발이 사실상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태극마크를 노리는 선수들이 '눈도장' 경쟁에 돌입했다.
-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으나 첫 실책을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 ▲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슈터 박구영이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고 구단 스카우트로 새 출발을 한다.
- ▲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시티와 계약이 끝나는 기성용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5년 동안 팀에서 땀은 큰 영광이었다. 응원해준 모든 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 ▲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신시내티 레즈와 4연전에서 3-5로 충격적인 싸움이 패배를 당했다.
- ▲ 프로야구 SK와이번스의 이재원과 박종훈이 지난 13일 열린 '소아암 어린이 돕기 사랑의 헌혈' 행사에서 헌혈에 동참했다.